'98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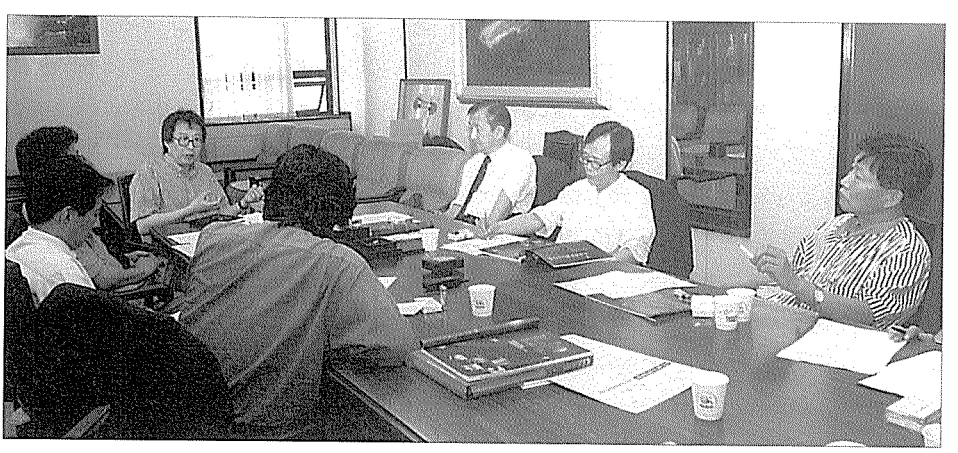
A Conference on the Theme of Korean Architecture Award '98 Competition on Architectural Planning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개최하는 '98한국건축문화대상의 작품공모요강이 지난달 3일 발표되었다.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가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올해의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성건축인 대상의 준공건축물부문과 신인(설계업무 종사자, 대학원생 등) · 학생 · 일반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 두 부문에 걸쳐 출품작을 공모해 오는 10월말 부문별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갖는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계획건축물부문은 '도시의 흔적'이 주제로 제시된 가운데 오는 9월 21일 작품(패널 및 모형 각 1점)을 접수, 심사를 거쳐 금상 1점(상금 500만원 및 상장) 은상 2점(각 상금 250만원 및 상장) 동상 5점(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입선작(각 상금 30만원 및 상장)을 가리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 3~4쪽 「98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요강」 참조〉

본지는 올해 공모전에 참여할 응모자들의 공모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초청해 지난 6월 17일에 주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이번 토론은 응모자들이 주제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토론내용중 주제의 발제배경과 범위, 각 심사위원들의 조언 등을 종합해 참고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본지는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이번 공모전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토론회 광경(사회 / 양남철)

일시 및 장소: 1998년 6월 17일 16:30,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

참석자

박서홍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본협회 이사)
김기철 (심사위원장, 본협회 이사)
동정근 (심사위원,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방철린 (심사위원, 인 · 토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승효상 (심사위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심영섭 (심사위원, 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양남철 (심사위원, 양남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제: 도시의 흔적

주제설명: 우리들 도시의 역사가 그리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경은 마치 급조된 것처럼 어설픈 편린들이 난무해 있다. 이는 우리의 도시현대사가 개발의 논리에 주도 당하여 그 평형성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층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는 기억과 욕망이 서로 대립하고 긴장하면서 건강하게 자란다. 옛 것이 있는가하면 새 것도 있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같이 있고, 성과 속, 높음과 낮음 등이 어울려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들에 강제된 개발은 지난 수 십년동안 새 것, 큰 것, 유용한 것, 빠른 것 등 만을 도시속에 담고자 하여 우리의 기억과 흔적들을 점점 사라지게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들 고유의 도시성은 이미 대부분 상실되었다. 드디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전대미문의 어려운 경제적 난국은 이 개발의 허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온 모든 가치를 다시 검증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과연 우리의 근거는 어디인가. 우리가 개발의 미명으로 지우려 했던 우리의 흔적이 남은 도시의 한 조각을 재발견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건축을 시작하려 한다. 그것은 우리의 귀중하였던 삶이 시간 속에 각인한 자국이며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리얼리티이다. 이로써 우리의 도시는 근거있게 되며 미래와 연결될 것이다.

박서홍_____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인 「도시의 흔적」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무엇보다 응모자의 공모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제에 대한 범위와 해석, 그리고 응모방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응모자들에게 주제의 접근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제공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남철_____먼저 이번 주제를 발제해 주신 승효상 소장께서 「도시의 흔적」을 주제로 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효상_____발표된 공모요강의 주제 설명문을 읽어보시면 모두들 개략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의 행태에 관해서 금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반성해 볼 필요에 의해 발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개발 논리에 의해 모든 가치가 전도되어 우리의 건축을 우리의 삶터로 여기기 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재화가치, 부동산가치로만 생각한 탓에 너무 빨리 짓고 너무 빨리 허물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재건축이니 뭐니해서 우리의 삶터를 그냥 쉽게 없애고 또 그 기록조차도 다 없애가며 또다른 새로운 삶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총독부처럼 역사적 기록을 지닌 건축물마저 본격적인 논의조차 거치고 않고 쉽게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허물고 쉽게 짓고, 또 쉽게 허물고 쉽게 짓고하는 이러한 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흔적을 쉽게 없앤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았던 삶을 경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듯 우리가 살았던 삶을 경시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살 미래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진지한 자세로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와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인 것 같아 이 주제를 발제했습니다.

양남철_____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건축의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쓴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철린 소장께서는 이에 대해 혹시 다른 어떤 긍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철린_____건축은 갑자기 어디서 사생아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어왔던 땅이 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그전에 갖고 있던 어떤 기초 위에서 그 다음 건축이 탄생되고 또 그 다음 다음 건축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과거 것들이 전부 무시되고 허물어진 다음에 새 것이 바로 생기고 하는 것은 '부모없는 아이' 격이 되는 것이고, '뿌리가 없는 열매'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란 생각입니다. 건축도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는 나무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커서 줄기가 나오고 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듯이 건축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봉오리 하나하나, 그 다음 과정의 열매 하나하나가 성장과정의 한 개체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체로써의 의미도 의미이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할

과정의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다음 것을 위한 준비, 즉 꽃이나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로 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늘 만들어지고 또 놓여지는데 이는 다음의 건축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갖고 있던 과거 유산들, 그런 것들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재해석돼서 앞으로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내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남철_____과거의 것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경시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현재나 미래에 대한 기초로 과거의 건축유산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나,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또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동정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정근_____앞서 주제발제에 대한 배경설명에서와 같이 건축가나 일반사람들이 도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개발을 무분별하게 시행함으로써 생겨나는 장소성의 상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제논리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중앙청이 철거되거나 문화유적이 없어지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가들의 엘리트주의가 만들어내는 맥락적 관계를 무시하는 경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서울 테헤란로 같은 곳에서 보면 각 건물마다 자기 잘났다고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있는 상태, 지금의 이 상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도시이고 또 하나의 유적이자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미래의 도시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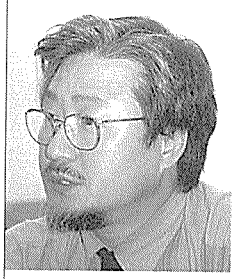
양남철_____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영섭 교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심영섭_____흔히 건축을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시대의 반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일반화된 이야기죠. 저는 도시의 흔적 자체도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화되고 상식화된 건축을 얘기하면서도 건축이 모여있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삶이나 생활이란 시대의 흔적이 빠진 상태에서 경제논리 등의 구축적인 성격으로만 가다보니 이젠 껍데기들만 남게 되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교수께서도 지적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도시 전체의 맥락이든가 어떤 장소성, 기존의 질서, 이런 것들이 물론 컨텍스트가 좋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 대비되는 것도 효과가 있고, 존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시에 건축물을 세우면서 도시라는 그 자체를 너무 특정건물이나 몇 개의 랜드마크들만을 가지고 인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전체의 어떤 삶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부분들, 그 중에서도 골목길이나 마당 등과 같이 그동안 주로 건축적인 어휘쪽으로만 다루어졌지 생활이나 삶과 연결지어 다루었어야 할, 우리에게 일상화되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양남철_____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기반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미 발표된 주제에 대한 설명문 중에 '경제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는 일견 상치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의 흔적이라는 것을 전대미문의 이 어려운 경제적 난국중에 외쳐야 하는 어떤 당의성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방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방철린_____문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이 많아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정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국일수록 문화적인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난국에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이제까지는 경제발전만을 생각해 문화발전을 생각 못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문화발전에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동정근_____주제설명중에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비유했을 때 흐르는 물과 샘솟는 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샘솟는 물에 적응하기 이전에 흐르는 물에 휩쓸려 갔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품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IMF시대에는 우리 건축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함께 밀려올 외부문화에 대하여 대처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문화에서부터 뿌리를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문화는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문화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남철_____이에 대해 승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경제와 문화는 결국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승효상_____경제문제를 굳이 공모주제에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가치의 전도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 가치가 지속적, 진화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졸지에 절단이 되거나 반전되거나 하면 문화적 공백이나 공황을 낳게 되는데 우리도 지난날 군부독재가 시작되면서 가치가 급격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잘 살면 된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천민자본이 득세하였고 일순간 우리의 지난 시대를 오랫동안 지탱해 왔던 가치가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시풍경도 무질서하고 욕망만 가득찬 꼴이 되어버렸고 그 잘났던 경제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옛날처럼 안빈낙도하면서 돌아가자는 건 순진한 생각이고, 이 시점 이 모든 상황을 긍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었지 꼭 경제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응모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독일 프랑크프르트의 뢰머베르그라는 광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뢰머베르그는 프랑크프르트의 시청사, 원래 구청사 자리에 위치한 곳인데 2차세계대전 당시 크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대전후 전후 복구사업으로 그 근처에 쇼핑센터를 알루미늄으로 근사하게 지었는데 프랑크프르트 시민들이 처음에는 부흥의 상징으로 여기며 좋아하다가 차츰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의 기억들과 흔적들을 다 없애버린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옛날 그 상태, 뢰머베르그 광장 주위에 있던 시청사와 옛날의 가옥들을 예전 상태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원을 하고나서 보니까 그 옛날에 그 건물이 있던 상태로부터 2차대전 때 파괴됐던 때까지의 기록들이 또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의 과거 흔적을 몽땅 지우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쉬른미술관이라고 방거트를 비롯한 몇 사람이 설계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옛날 거리의 맥락을 살리고, 가로 프레임도 살리면서 또 그 주변에 집을 지어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 옛기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그곳에 몇 개의 상가도 더 지었는데 상가 사이, 건물 사이사이에 보면 옛날에 쓰던 길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그 길 이름 위에다가 '기억 속의 무슨무슨 길'이라고 이름 팻말까지 붙여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훌륭한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예로 비엔나에는 로스하우스가 있는 미카엘 광장이 있는데 합스부르크왕조의 겨울궁전이 있는 비엔나의 중심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지난 80년대 중반에 로마시대 때 이후의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로마시대 때의 군사 요충지로 유명했던 그 당시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그 이후에도 로마네스크양식 등의 많은 건축유적 · 유물들이 적층된 채로 발굴돼 기념관건립 현상설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비엔나의 건축가 한스 홀라인의 안이 당선되었는데 우리 같으면 한식 건물하나 짓고, 단청칠해 기념관이라고 하겠지만 한스 홀라인은 발굴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비엔나 사람들에게 이 도시가 얼마만큼 오랜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이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 것이죠.

아까 동교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도시 흔적을 찾는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이 싫으니 모두 없애고 옛날 것을 다 복원하자 하는 생각은 지금 것이 싫으니 새로 짓자는 생각과 똑같은 맥락의 생각이라 봅니다. 조선총독부가 헐리기 전에 총독부를 헐자는 쪽과 헐지 말자는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쪽은 총독부를 헐어 경복궁을 복원하자는 부류였고 또 한 쪽은 그것을 허물지 말고 영원히 보전하자는 부류였는데 이 두 부류가 굉장히 다른 입장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양쪽 모두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복원을 하자는 사람들은 총독부가 세워진 이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없애자는 얘기고, 그걸 그대로 두고 영원히 간직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는 기록, 삶을 기록하는 건축을 지속적으로 남기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동교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있는 상태를 우리의 리얼리티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록해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이 도시의 흔적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철_____도시의 흔적이라는 개념하고 거리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에 있어, 어느 거리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 그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 해석하면 보전하는 형식이 되어 버릴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어느 정도 가미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응모자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잘못하면 전과 같은 식으로 가로망기획 정도, 다시 말해 흔히들 얘기하는 무엇 만들고, 무엇 만들고 하는 식이 되어선 안되겠죠. 그래서 도시의 흔적이란 그 개념 자체를 정리해 줘야 응모자들이 이걸 풀어나가는데 쉬울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보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씀내용을 들어보면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리를 해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줘야 풀어나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승효상_____그것은 우리에겐 생소하게 들리지만 잘 보전된 도시환경을 가진 유럽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죠지 그라사라고 하는 이태리 건축가가 스페인 사군토의 로마극장에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곳에 지은 건물은 새 건물이 아니라 폐허에, 즉 옛날 로마시대의 노천극장 있는 그대로를 정리하여 그 위에 새로운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도시의 흔적에 대한 새로운 건축의 발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전이 아닌 새 건축입니다. 새 건축이지만 그 건축을 보면 '아, 옛날에 이 도시에 로마의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가로망을 다시 세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어떤 기록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 새로운 건물, 하나의 작은 건물이라도 세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철_____그렇다면 우리의 서울을 예로 들어 강북같은 경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흔적이라도 잡아 그것을 풀어나가기가 쉬울텐데 앞서 얘기됐던 테헤란로나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제각각의 건축물들이 제멋대로 서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서울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강북 정도를 대상으로, 물론 강남에 강북의 것을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한정시켜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지금 간판 비슷하게 되어 있는 테헤란로 같은 곳을 하나의 흔적이라 보고 그 특성을 끌고 갈 것인지 흔적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봅니다.

동정근_____흔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기억' 입니다. 그 기억된 장소를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흔적이란 것은 어떤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된 장소로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승소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프랑크프르트에 그런 광장을 다시 만들고, 그런 골목길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전쟁 이전에 가졌던 광장과 골목길에서 도시적 행태를 다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강북지역에서도 옛날의 기억들을 다시 찾아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강남지역에서도 알게 모르게 또 다른 어떤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역 근처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학생들 나름대로의 장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_____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너무 구축적인 것,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접근을 하다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또다른 새로운 것 아니면 색다른 것을 세우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논의됐지만 지금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 98년일 수도 있고 90년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잊고 있으나 나중에 가서는 아, 그때 그것이, 또 어떤 건축이 서울의 특색으로써 인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경제논리에 대한 얘기중에 나왔던 말이지만 짓는다고 하면 무조건 신축이고, 20~30층이고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건물하나 수리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점점 밑에 깔린 생각들조차 없어져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외국의 로스하우스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난 것이 제가 전에 읽었던 캐네스 프램프턴의 책에서 로스하우스가 지어지고 난후 비엔나 시내에 있던 맨홀뚜껑이 로스하우스와 모양이 똑같다고 하여 만화에서 로스하우스의 입면과 맨홀뚜껑을 대비시키며 비평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가 직접 구경을 하다가 1900년대초의 맨홀뚜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하찮은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저 자신이 마치 로스랑 동시대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나 학교에 가보면 그 당시와 여러 가지로 틀린 상황인데도 그 어떤 실마리를 끄집어내고 그러므로 환경이라든가 어떤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생기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나오곤 합니다. 이런 것이 조성되면서 도시 전체가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삶이 기저에 깔리게 되면 우리가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무시되고 대부분들 평당 단가가 얼마고 무슨 아파트고 평수가 어떻고 하는 물리적 척도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점차 건축을 하는 사람들조차 계량적이고, 보이는 것 위주로만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남철_____'도시의 흔적' 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얘기가 서울이라는 대도시만을 두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응모자들 상당수가 지방에 거주할텐데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방철린_____저는 그래서 도시의 흔적과 연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흔적에 대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주로 골목이라든가 특정 건축물, 옛날에 갖고 있던 역사적 흔적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아니고 자연적인 요소같은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연적인 요소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 앞에 있던 어떤 시내(川)나 그것과 연관된 수변, 언덕이라든가 아니면 큰 나무 같은 것들도 그 범주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인위적인 요소라든가 건축적 요소로 보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외에 마을이나 동네도 한 단위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 골목이나 다리, 담, 경계, 마당, 지붕, 집의 어떤 틀, 스트리트퍼니처 같은 것들도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꼭 건축과 연관이 안되더라도 장소적인 요소로서 시장터라든가, 빨래터 등과 같이 어떤 행위가 일어나거나 역사적으로 뭔가 일어났던 장소적 의미를 갖는 곳, 이 모두가 범주안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동정근_____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문제는 현재 건축사지가 연재중인 지역건축탐방란 중에 도시탐색에서 자연의 풍경이나 지리, 그리고 도시의 구축물들도 하나의 도시탐색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지가 지금까지 테마기획으로 다루었던 지역건축탐방이 지방의 응모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남철_____응모자중에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소화를 하여, 관념적이거나 주제에 접근하는 해석은 좋았을 수 있는데 그것의 표현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 있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자 도움말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서홍_____지난번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에서 올해 행사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경우에는 IMF체제라든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문제를 건축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심사위원들께도 이를 반영하도록 전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건축물부문의 경우에 있어, 좋게 얘기해서 방만하다고 할까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너무 무절제한 그런 류의 건축물이 보태지고, 그런 류의 건축물들이 당해년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공사비가 투입돼 미학적으로도 절제된 표현, 그런 것이 반영되고 지어진 쪽으로 방향을 잡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준공건축물부문의 심사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건축물부문도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그런 쪽의 의미를 받아들여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양남철_____계획건축물부문에는 대부분 신인이나 학생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대안 제시나 완전한 소화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파노라마식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하나의 주제로 집약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시각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계획할 때, 머리 속의 생각과 표현해 낼 때의 괴리 차이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입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 심사기준 내지는 좋은 가이드 라인이 될 말씀을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효상_____무엇보다 응모자들이 생각은 크더라도 프로젝트 규모를 좀 작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아서 사고를 제대로 못하거나 방만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흔히 보듯 해 놓은 건 많은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표현은 근사한데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등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고민을 안하고 기성건축가들의 어휘만 흉내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응모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사유한 이후에 그 사유한 것을 토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철린_____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작품이 많이 응모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가 있다면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허황되고 사람 눈을 홀리는 그런 것 보다는 진실성이 엿보이는 것이 높게 평가되리라 봅니다.

김기철_____설계도면이란 것은 간단할수록 이해가 쉬운데 자기가 내놓을 것이 없을 때는 가식이 붙게 마련이어서 자신도 모르고, 보는 이도 모르는 도면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급적 간단한 도면으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정근_____장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응모자들이 도시의 흔적을 관심갖고 찾는다고 하는 건 결국 도시를 보는 눈을 갖기 시작하는 첫출발이라고 할 수 있기에 어떤 장소의 기억을 찾아서 주제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중에 나온 예들은 그중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주제나 소재가 가상적이어서는 안되고 실제 우리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장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도판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양남철_____그렇다면 장소를 찾는 것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방철린_____앞서 나온 얘기처럼 자연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도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스트리트 퍼니처가 될 수도 있고, 건물도 될 수가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흔적이닌까 도시안에 있는 것이면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오늘 토론 내용중에 독일과 비엔나의 예를 들고 또 중앙청(조선총독부)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일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부류의 것을 해야만 이번에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얘기돼야 될 것이고 넓은 범위에서 조금 전 동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_____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건축물부문이 사이트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해서 개념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으며 또 도시의 흔적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사실은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이 됐건, 다른 지방도시가 됐건, 아니면 도시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사는 대상이 됐건, 자연이 대상이 됐건, 중요한 것은 여기 주제설명에 나와있는 문장중에서 키워드에 해당되는 '아름다움과 추함, 성과 속, 높음과 낮음 등이 어울려 있는 오랜 시간 속에서 정체성'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건축을 다루면서 쭉 그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 쪽에 치중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응모자들이 여러 국내 건축공모전 등을 통해 익숙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의 흔적이라는 주제 하에 나머지 반쪽에 대한 것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응모자는 그 키워드 속에서 자신이 구체화시키려는 것을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가 대지라든가 도시를 자기 생각과 잘 매치시켜야 하겠으며 기본적인 주제설명에 나와있는 키워드 내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 해결하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철_____토론 전반부에 나온 얘기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 랜드스케이프(Landscape)쪽에 너무 치우칠 우려가 있고 스트리트퍼니처나 거리에 대한 표현은 어차피 시골길에 나무심자고 거길 찾아가자는 개념은 아니니까 도시 아닌 어느 마을의 한 모퉁이를 계속간다하는 정도의 생각에서 정리를 한다면 규모를 크게 잡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서홍_____방소장 말씀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해서 부연합니다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엘러먼트를 먼저 디자인해 가지고서 그것을 디자인의 요소로 삼아 발전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잘못하면 도시의 상징적인 것도 좋은가보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으니 이는 좀 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철린_____제가 말했던 것은 스트리트퍼니처의 특정한 예를 들은 것이 아니고 도시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리트퍼니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 어느 특정한 예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양남철_____바쁜 시간, 많은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